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 불교계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김 귀 성

(원광대학교)

《 요 약 》

이 논문은 한국의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로 불교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종교계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에 처해 있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립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종교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비정규 교육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국 교육환경의 여건을 벗어나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역사는 오래 되나 현재 불교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발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입시교육 아래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어려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의 난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낮은 만족도, 교사의 전문화, 교재의 개발, 교단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들 과제를 해결하면서 종교교육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교화나 포교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단과 관련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여건 형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화, 교재개발, 수업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I. 이끄는 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래가 드문 다종교 사회에 처해 있다. 이런 현상은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끌기에 족하다. 그런데 한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종교 상황 아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주로 한 종교교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종교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종교, 교육의 발전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교육 및 종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은 1968년 중학교 무시험추천배정에 의한 입시제도, 그리고 이어서 1974년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의한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종교교육은 그 특수성이나 독자적인 위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종교교육 관련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교육제도는 학생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종교신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 제19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동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법 제5조에서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초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 편견의 선전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공립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신앙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의 신앙과 대치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제 5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자유선택과목으로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학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학 입시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고등학교가 종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부 중학교에서만 선택 운용될 뿐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종교교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90년 이후 최근의 일로서 이는 종교과목의 선택과목제로의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배경은 종교교사의 수요와 종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자유교양 선택과목제 표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1990.3.1-1991.2.28)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부설 임시 교원양성소에서 92명의 종교교사를 양성한 바 있고(윤이흠, 1991: 331), 현재는 종교관련 학과 학생들 중에서 입학 정원의 30% 범위내의 학생에게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크게 종교에서 설립 운영하는 종교계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과 일반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가 각종 비정규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교육을 교과로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 국·공립학교 또는 비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입장에 선 종교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덕, 윤리, 국사 등과 같은 일반교과 내용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여기서는 주로 불교와 원불교의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과 기타 관련된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계 중등학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많은 종단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불교와 원불교에 주안하기로 한다. 물론 대순진리회의 경우는 대학에서 대순철학을 교양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II. 종교교육의 역사

한국에서 종교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할 수 있다. 종교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또는 우리 나라에 유입된 종교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형식적인 종교교육의 의미로 종교교육을 본다면 이미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형식교육에서 이뤄진 종교교육에 한정한다면 20세기에 진입한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서구문화가 유입된 이후 우리에게 소개된 현대식 교육제도로써 중등교육의 역사는 서구 또는 동양의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그리 오래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교 내지는 원불교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언제 어

면 의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학교의 역사적 전말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

기독교계 학교의 뒤를 이어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해 구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중앙교육 기관으로서 당시의 원흥사에서 개교하였다. 그러나 교명이 해화전문으로 바뀐 시절에 항일운동의 보루로 지목되어 일제에 의해 1944년 5월 폐교되었다. 광복과 함께 46년 9월 20일 동국대학으로 승격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불교계 종립학교의 출발은 민족과 불교의 운명을 개척할 인재를 육성코자 학교를 설립한 것이 종립학교의 시작이었다. 일반적으로 중등학교에서 불교의 종교교육의 목적은 「종교의 기본개념, 세계 여러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통하여 학생들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민족과 인류의 원대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불교교육연합회, 『불교』(고등학교), 1996: 1)으로 이해된다. 이런 종교교육의 목적은 비록 종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연구(김영호, 1986: 51-52)에 의하면 조계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격의 완성과 지혜의 말씀의 생활화」를, 진각종은 「불교 신앙 위의 자아완성, 국가 사회에 봉사하고 참되고 예절바른 인간육성」을 원불교는 「우주 대자연에 은혜에 감사하는 인간육성, 부모·형제·동포에게 보답할 줄 아는 생활인 육성」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종교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완성과 사회 봉사하는 인격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종파교육 또는 종교선교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불교계 중등 종립학교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 1996 참조). 광복 이후 불교계는 31개의 종립학교를 인수 운영했으나 종단의 내분과 사정에 따라 13개교가 종단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조계종단에는 동국학원을 비롯한 8개 학원재단 산하 중등학교가 21개교, 진각종이 4개교, 총지종이 1개교, 기타 불교계가 2개교, 원불교가 8개교로 총 2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원불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중등학교<표 1> 역시 대부분 해방 이후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제시대부터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일찍이 원불교는 해방 이전 교조인 소태사 대종사 재세시인 1928년의 인재 양성 기성 조합단을 비롯하였고 이어서 1941년 1월 15일 불교전수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당국에 설립 수속서를 제출했으나 일제에 의해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원교육을 실시하였다(『원광대학교 40년사』: 40-41). 이 학원(유일학림)이 해방이후 오늘의 원광대학교와 종단 산하의 각종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불교계 중립학교 및 원불교 교립학교 설립년도별 현황

설립 년대별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30	40	50	60	70	80	계	
불 교	조계종	1	8	2		1	1	2	4	1	1		2	10	6	1	2		21	
	진각종			1		1			1		1				2		2		4	
	총지종				1											1			1	
	기 타									1	1					1	1		2	
원 불 교				2		1			3		1	1			5		2	1	8	
계													2	10	13	3	7	1	36	

그런데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직접적으로 헌법이나 교육법에 명시된 바를 떠나서도 간접적으로 정부의 중등교육정책이 종교교육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예컨대 1969년부터 실시된 중학교무시험 제도, 1974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980년부터 실시된 대학입시에서 내신 제도의 정비 등은 결과적으로 사학교육의 독자성 자율성, 다양성 내지는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

그러나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이뤄진 것은 1988년 이후 최근의 일이다. 이에 따라 교재의 새로운 편찬을 비롯한 종교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시정책이나 사학에 대한 정책의 발표는 종교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시의 부담을 떨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학교와 고

등학교 3학년에게는 종교교육마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Ⅲ. 한국종교교육의 현황

1.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

한국은 무속신앙과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유교, 도교 등 전통적인 종교문화를 심화발전시켜오다 19세기 말 서양의 문물의 유입과 함께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제 다종교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1985년 한국의 종교인구는 17,203,296명으로 전인구의 42.6%였다(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994년 종교인구조사에 의하면 전 인구의 약 49.9%(약 2,280만명)가 종교를 신앙하고 있고 불교(24.4%), 기독교(18.2%), 천주교(5.9%), 유교(0.4%), 원불교(0.3%), 기타(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 인구 비중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이 6.2% 더 많았고, 연령이 높을 수록 종교 인구 비중이 높은 추세로 나타났다(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년감』(1995), P.307). 총 종교 신앙인구는 85년에 비해 32%정도 증가한(2,280만명)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개신교, 카톨릭의 교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불교는 약 30%정도 증가하였다<표2 참조>.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종교계에서 선교사업 외에도 의료사업을 비롯한 교육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기여에 노력을 해왔다. 특히 종교계학교의 설립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근현대 교육사에서 주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하는 종교적 심성과 가치 태도를 깨우쳐 비극적 운명의식과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나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는 계기(전영배, 1988: 9)를 가져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화활동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뤄진 특징이 있다.

<표 2> 한국종교인구 현황(신도수)

(단위: 명)

종단 연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전국
1985	8,060,000 (46.8%)	6,489,000 (37.7%)	1,865,000 (10.8%)	483,000 (2.8%)	92,000 (0.5%)	27,000 (0.2%)	11,000 (0.1%)	175,000 (1.0%)	17,203 (100)
1994	8,059,624	6,489,282	1,865,397	483,366	92,302	26,818	11,030	175,477	

(출처: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년감』 1995, PP.312-31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6), P.426.

<표 3> 한국의 사학·종교교육의 현황(1995)

(단위: 명)

구분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 수(%)		종교계 학교수(%)	
	전체	사립학교	전체	사립학교	전체	사학
중 학교	2,705	694(25.9)	2,379,983	596,000(24.0)	145(5.4)	145(20.9)
고등학교	1,856	914(49.7)	2,243,307	1,295,000(60.0)	179(9.6)	179(19.6)
계	4,561	1608(35.6)	4,613,290	1,891,000(40.8)	324(7.1)	320(19.9)

(출처: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통계편람』(1996), P.72),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종립학교 운영현황자료집』(199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년감』(1994, 199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년감』(1990), 대한불교총람편찬위원회, 『한국불교총람』(1993), 등 자료 참조함)

1994년 한국 중등사학이 전체의 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학생 비율로 볼 때 중학교(24.4%), 고등학교(60%)로 1991년 일본의 중학교(4.1%), 고등학교(28.9%)나 미국의 12.2%에 비해 사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사학 중에서도 종교계 학교는 전체 학교의 약 7%(중학교 5.4%, 고등학교 9.6%), 전체 사학 중에서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중학교 20.9%, 고등학교 19.9%)를 각 차지하고 있다. 종교계 중등학교 중에서 각 종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 종교계 중등학교 현황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불 교	14	14	28 (8.6%)
개 신 교	100	117	217 (67%)
천 주 교	26	36	62 (19%)
통 일 교	2	2	4 (1.2%)
대순진리회	-	6	6 (1.8%)
원 불 교	3	5	8 (2.4%)
계	145	180	325 (100%)

(출처: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년감』(1994, 1995), 한국불교총람편찬위, 『한국불교총람』, 대한불교진흥원(199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년감』(1990) 참조)

불교계와 원불교 교단에서 설립 운영되는 종교계 중등학교수는 조계종단이 21개교, 진각종이 4개교, 총지종이 1개교, 기타 불교계 2개교 총 28개교이며 원불교는 8개교로 확인되었다.

이들 불교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5-1> 종교교육의 현황(조계종)

학 교	학교 수	학급/학생수	종교직원수/평균	종교교사(교법사)/평균	불교신행 학생 (%)	종 교 수 업(교학수업)			
						전학년 주1시간	12학년 주1시간	1학년만 주1시간	13학년, 주1시간
중학교	11	250/ 12,720명	516명/ 47명	13명/ 1.18명	3,296명 (25.91%)	6개교	4개교		1개교
고등학교	10	267/ 12,724명	612명/ 61명	17명/ 1.7명	2,291명 (18%)	-	8개교	1개교	1개교
계	21	517/ 25,444명	1,128명/ 53.71명	30명/ 1.43명	5,587명 (21.96%)	6개교	12개교	1개교	2개교

(자료: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1996), 『종립학교운영현황 자료집』, 전국교법사단(1994),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표 5-2> 종교교육 현황(진각종)

학 교	학교 수	학급/ 학생수	종교직원수/ 평균	종교교사 (정교) / 평균	불교신행 학생 (%)	종교 수업(심학수업)			
						전학년 주1시간	1.2학년 주1시간	1학년만 주1시간	1.3학년, 주1시간
중학교	2	60/ 3,189명	112명/ 56명	4명/ 2명	1,165명 (36.53%)	2개교	-	-	-
고등학교	2	60/ 2,987명	130명/ 65명	4명/ 2명	1,302명 (43.58%)	-	2개교	-	-
계	4	120/ 6,176명	242명/ 121명	8명/ 2명	2,467명/ (39.94%)	2개교	2개교	-	-

(자료: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1996), 『종립학교운영현황 자료집』

<표 5-3> 종교교육 현황(원불교)

학 교	학교 수	학급/ 학생수	총 교직원수/평균	종교교사 (교무) / 평균	원불교 교도 학생 (%)	종교 수업(교리)			
						기타	1.2학년 주1시간	1학년만 주1시간	1.3학년, 주1시간
중학교	3	63/ 2,853명	150명/ 50.0명	3명/ 1명	446명 (15.63%)	-	2개교	1개교	-
고등학교	5	95/ 4,320명	198명/ 39.6명	7명/ 1.4명	865명 (20.02%)	1개교	1개교	3개교	-
계	8	158/ 7,173명	348명/ 43.5명	10명/ 1.3명	1,311명/ (18.28%)	1개교	3개교	4개교	-

(자료: 원불교교립학교 연합회(1997), 『교립학교 교화현황자료집』

1) 학생의 종교신앙 분포

불교계 중등학교 학생들의 종교신앙 분포를 보면, 조계종의 경우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 수는 중학교가 37.6%, 고등학교가 24.7%로 나타났고 불교계 종립학교에 입학한 후 불자학생이 된 비율도 중학교가 37.3%, 고등학교가 24.7%로 조사되어

실행 활동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 1995: 9). 그리고 진각종은 약 40%, 원불교의 경우는 20% 미만으로 대부분 40% 미만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교육현황 <표 5>의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에 나타난 바는 이 보다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학생들의 이런 종교배경은 실제로 종교교육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불교계 중등학교에서 불교와 다른 종교배경을 가진 학생이 불교계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교육이 때로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과 비정규 교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체로 교리수업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수업 이외의 과외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는 대체로 해당 종단이 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전학년에 걸쳐 주 1시간씩 실시(전체의 54.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90년도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부터 고등학교에서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반학교로 파급은 부진한 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매주 1, 2시간 종교교육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목명칭은 종교, 윤리, 도덕으로 각 종단마다 교의에 따라 그 내용이 이뤄지고 있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田口めぐみ, 1997: 210).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중학교의 43.7%가 고등학교는 29.5%만이 유익하다고 반응하여 고등학교는 타 교과에 비해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익채(1982)의 조사 결과(재미있고 유익했다에 중학교 71%, 고등학교 38%)와 비슷한 결과로 주목을 끈다.

교학수업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시간은 정규 과목이 아니기에 그 실시방법이나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여건 아래서 시간배정이나 교육평가의 면에서 자주성도 결여되어 있다. 수업 결과에 대한 학습

평가의 반영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이나 타 교과 성적에 포함시키거나 전혀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학수업 시간에 주로 하는 의식은 참선, 입정, 반야심경 봉송 등이 많았다.

한편 원불교의 교립학교 수업의 경우 대체로 중학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주 1시간씩 교리수업이 운영하는 편이다. 장영수(1993)의 연구에 의하면 원불교 교립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반응이 45.4%를 나타냈다. 교리수업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이나 거부감이 적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리수업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더 즐거운가”에 대해서는 61%가 부정적이었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종교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영산성지 고등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전원 기숙사 생활, 전체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능력별 이동식 수업, 체벌 금지,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 제공 등으로 인성 중심의 교육을 하는 對案學校(Alternative Education)로 잘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은 수업의 목표나 수업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주성이 결여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3) 종교교사 양성 및 현황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양성은 세속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규대학의 종교학 관련 전공 학생으로서 입학정원의 30%범주 내에서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종교과목(불교)을 담당하는 하는 교사(교법사) 현황을 보면 조계종의 경우 교학교과만 전담하는 교사는 전체 종립학교 중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1명은 타 교과목과 교학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2명은 일반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교법사의 수업시간도 2/3가 평교사와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교법사 중 42.9%가 평교사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종립학교운영자료집』(1995: 9). 원불교의 경우 교립학교 교무는 총 11명이 현재 교단에서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지만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무는 3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교화자로서 위상 정립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4) 비정규교육과정 운영

비정규 종교교육 활동의 현황을 보면 먼저 조계종단, 진각종 등의 종립학교의 경우 대체로 매주 1회 년 40회 정도의 법회 활동과, 학생회를 통한 특별활동 및 기타 부처님 오신날을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를 통한 종교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전국 중등학교에서 불교반을 특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59개교로 나타났다(『법회와 설교』제8호, 1995. 12). 그리고 원불교는 법회운영 및 훈련, 교화단 활동, 기타 각종 년중 행사를 통한 종교교육 활동을 각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 학교에서도 정규교육 외에 종교교육 및 수련기회를 가지며 교재는 불교종립학원 연합회에서 간행한 『불교』를 채택 사용하고 있다. 자유교과시간을 이용 주1시간씩 자유교과시간을 이용하여 학습하며 월1회 교직원법회, 년1회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불교적 인격도야”에 두고 있었다. 원불교 역시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법회, 각종 의식 등을 통한 비정규 종교교육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5) 교재

불교계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종교교육 교재 내용을 분석해보면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과 해당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제도 의식 등을 소개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교재를 발행하여 활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교육부 고시(1992년)에 의하면 종교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양선택 교과서의 고등학교 ‘종교’ 과목은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봉착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사항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 현실과 다종교적 상황의 인식과 더불어 다른 종교의

견해와 신앙생활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자기의 가치나 의견을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논술식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성 내용을 전제로 실제 불교 교재의 구성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먼저 인간과 종교, 세계의 종교, 한국의 종교, 현대사회와 종교 등을 소개함으로써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종교본질 내지는 종교의 보편적 특질에 대한 도입부분이 현저히 증가한 점이 확인되었다.

6) 조직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직을 든다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불교교육연합회”, “전국교법사단” 등을 들 수 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단포교원 관련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라면 교법사단은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법사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교육이 1945년 능인중고 해동중고에서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되었으나 1968년 불교종립학원연합회(1962년 발족)주관으로 제도화된 선발 및 자격부여가 이뤄진 이래 1968년 교법사단이 발족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원불교의 경우는 최근 교립중등학교 교무들로 구성된 교립학교 교무연합회가 발족되어 종교교육과 관련된 연수 및 연구발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비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현재 한국에 있어서 종교계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종교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그리고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다만 국사, 윤리 등과 같은 일반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이다.

정진홍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에 관한 서술들을 담고 있는 교재들로는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등으로 이들 교과서 서술내용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들고 있다(정진홍, 1990: 279-181). 1) 종교가 그 나름의 현존양태 또는 문화적 실체로서 승인되지 않고 있다. 2) 종교환원주의적 태도는 종교를 종교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위치시키지 않고 전혀 상이한 인식틀 안에 넣음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고 있고, 3) 종교가 특정종교의 고백적 시각 곧 특정 종교의 자기주장의 논리가 종교일반에 대한 지적 인식의 내용을 서술되어 있다. 이 밖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국어, 사회, 지리, 국민, 윤리 등으로 그 특징을 이렇게 지적한다(정진홍, 1990: 285-287). 종교에 대한 언급이 상당한 수준에서 지적 체계로 종교를 구조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1) 종교현상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결여한 채 일방적인 시각 위에서 이해나 부분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고 2) 학계의 일반화된 내용의 결여 등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중인 중학교 『도덕』 1(1995), 2(1990), 3(1991)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양사상 또는 한국사상의 비중을 높인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이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로서 비중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기술 내용 중 일부는 소극적이고 개인윤리에 치중한 나머지 대사회적인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한다(채성만, 1996: 89-111).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동서양의 인물 총 72명중 불교 관련 인물은 (한국4, 동양2) 7으로 전체의 9.7%에 해당되며 질문문항 14중 불교 관련 질문문항은 4문항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1)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2) 전미개오처럼 난해한 설명도 발견된다(고우익, 1996: 1-40).

IV.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을 크게 종교교육(in religious belief)과 종교에 관한 교육(about religious

belief)으로 나눌 수 있다면(W. D. Hudson, 1980: 188) 전자는 특정 종교의 신념 체계에 입각하여 인간의 완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후자는 종교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회문화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윤이흠, 1985: 7). 만일 Teaching about religion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르친다면, 즉 Teaching religion이라면 敎化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제일의적 의미는 “전인교육”에 있다(윤이흠, 1991: 3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현대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종교가 인격형성의 전형적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독단적인 인격형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국교를 거부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공교육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로 국민을 교육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종교교육이 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종단교육의 일환으로서 종교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종교들의 교리적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것을 벗어나 자기종교와 타종교 그리고 인간과 역사를 객관적인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종교문화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요컨대 종단교육에서 종교문화교육으로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익채(1982)와 조계종 종립학교 자료집(1995)에서 제시된 종교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도층이 종교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학 이념구현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교학수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說話式, 問答式,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 3) 불교의식, 학생회, 수련회 등 비정규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교육에 더욱 노력을 요한다.
- 4) 종교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 5)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법사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인 참된 불자의 자세로 가짐으로써 종교 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6)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원양성을 실시하여 정규과목으로 종교교육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제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정부의 중·고교 입시의 자

율화,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등의 실시에 대한 발표는 종립학교로서는 전반적인 위상정립이 절실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장영수(1993)는 원불교 교립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리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재준비, 교수학습의 계획수립, 방법, 학습 형태, 조직, 전개 평가 등에 대해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끝으로 종교교재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교재 내용에 있어 관련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제도 역사를 소개하는 폭이나 깊이가 관련 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이해하기에 어려울 뿐더러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나 논의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다. 2) 오히려 종교를 통한 인간의 삶이나 실제 생활에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교재보다는 여러 종류의 교재가 개발됨으로써 종교교육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 타종교에 대한 소개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종교의 입장을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평가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적인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부분적으로 『사회』, 『윤리』, 『철학』 등과 같은 일부 교과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종교에 대한 접근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종교에 대해 접근될 뿐 실제적이고 실증적이며 역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들 교과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삶의 본질적인 물음과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편협한 종파교육이나 선교교육이 아닌 종교에 관한 교육 즉, 종교학의 교육과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렇듯 종교현상에 대한 교육은 종교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며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 대한 이해, 성숙한 인간에의 지향,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종교를 교육하는 것이지 특정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V. 맺는 말

한국의 불교 및 원불교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중등학교는 기독교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불교는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해 온 중요한 종교로서 특히 형식교육 못지 않게 비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교육적 기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교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밖으로 국가의 교육정책과 안으로 교단의 종교교육에 대한 제반 지원과 배려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불교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먼저, 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교육 및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도 진정한 의미에서 전인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교육이 인간교육을 위해 종교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이나 삶의 자세와 방식이 매우 귀하고 중한 교육적 가치라고 판단하고 교육에 도입하여 실시하는 교육(박선영, 1996: 10), 즉 종교적 교육이라면 종교교육에서 핵심은 “종교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종교교육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이 입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으로 직접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종교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교육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보다도 종교교육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종교교육이 교화나 포교 차원보다는 종교성을 길러주는 본연의 목적이 충실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수업,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문제,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교재와 다양한 교구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종단의 지원과 배려가 전제되어 함은 당연하다.

〈참 고 문 헌〉

- 김영호(1986).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환. 전인교육론. 세영사.
- 김종서(1990). 종교교육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 김형중(1996). 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1995). 종립학교운영현황 자료집.
- 박선영(1995). 현대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권.
- (1996).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윤이흠(1986). 한국종교연구 1권. 집문당.
- (1991). 한국종교연구 3권. 집문당.
- 이지연(1992). 중등학교의 불교교육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영수(1993). 청소년의 종교의식에 관한 연구 -원불교 교립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국교법사단(1994).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 (1995). 국정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에 관한 고찰.
- 田口めぐみ(1997).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의의. 井上順孝. 宗教와 教育.
- 전영배(1988).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井上順孝 編(1997). 宗教と教育. 東京: 弘文堂.
- 國學院大學 日本文化研究所 編. 井上順孝 監修(1993). 宗教教育資料集. 東京: すずき 出版.
- 정진홍(1990). 종교교육의 실태. 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94). 한국종교년감.
- (1995). 한국종교년감.

한국불교총람편찬위원회(1993). 한국불교총람. 대한불교진흥원.

현익채(1982).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불교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Beckford J. A.(1997). The politics of religious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s paper wa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gious Education. Tokyo, 12th September, 1997.

Cox Edwin, Cairns M Josephine(1989). *Reforming Religious Education*.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 of London.

Hee Chun Kang(1997). The outlook for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Christian schools. This paper wa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gious Education, Tokyo, 12th September, 1997.

Hudson W. D.(1980). Is religious education possible. in edit by Langford G & O'Connor. *New Essay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K.P.

INOUE Nobutaka(1997). The condition of and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in Japanese secondary education. This paper wa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gious Education, Tokyo, 12th September, 1997.

Kim Gui Sung(1997). Status and task of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of Korea-focused on secondary schools established by Buddhism and Wonbuddhism. This paper wa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gious Education, Tokyo, 12th September, 1997.

Noordin T. A.(1997). Secondary school religious education: Malaysian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his paper wa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gious Education, Tokyo, 12th September, 1997.

* 이 논문은 日本 國際宗教研究所(東京: 國學院大學)에서 주최한 “국제종교교육 심포지움”(1997. 9. 12)에서 발표되었음.